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7차)			
개최일시	2025. 12. 30(화) 09:30 ~ 13:00	회의장소	진선미관 진관홀
참 석 자 (13명)	김수민(경영대학 공동대표), 반지민(학부 총학생회장), 석지우(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송수진(학부 부총학생회장), 신동희(교무처장), 윤정원(한영회계법인), 이다연(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승연(관리처장), 이주연(예산팀장), 이준엽(기획처장), 이창온(총무처장), 장현수(대학원 학생회장), 최정아(학생처장)		
불 참 자 (0명)			
안 건	1) 2026학년도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 2) 2026학년도 특수대학원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 3) 2026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		
의결사항	[안건 1] 2026학년도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 원안대로 승인 1. 정규등록금, 학점/교과목등록금: 7% 인상 - 대상: 학부/대학원 정원의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안건 2] 2026학년도 특수대학원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 원안대로 승인 1.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신설에 따른 등록금 책정 -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등록금 계열 동일 적용 2. [간호대학원] 특수대학원 신설(전문간호학과, 통합간호학과)에 따른 등록금 책정 - 간호대학원 등록금 계열 신설 적용		
	[안건 3] 2026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3.0% 인상으로 승인 1. 입학금: 동결 2. 정규등록금, 교과목등록금: 3% 인상 - 대상: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정원의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제외) 3. 연구등록금, 논문등록금, 계절학기: 3% 인상 - 대상: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내 용	■ 개회 - 위원장이 참석위원 전원이 '위원회 준수사항 및 보안 유지 동의서'를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작성하여 녹음을 개시함을 알리다. 이어 위원장이 회의록은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로 공개해야 함을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고, 본인 발언에 한해 수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다. 회의록 간서명을 진행할 대표위원 3인을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위원장과 기획처장, 학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안내하다. 2026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인 차기 학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였음을 안내하고, 위원장이 총 13명의 위원 중 13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요조건이 충족됨을 확인하여 제7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

■ 회의내용

1. 2026학년도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
2. 2026학년도 특수대학원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
3. 2026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

- 위원장이 전체 보고 이후 질의응답 진행을 제안하고, 예산팀장에게 세 개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2026학년도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과 관련하여 글로벌학부 신설 이후 기존 운영 프로그램 확대 내용과 추가 지원 예정 내용을 포함하여 책정(안)을 상세히 설명하다.

- 위원장이 모든 안건을 설명한 후 진행을 이야기하며 두 번째 안건도 함께 설명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2026학년도 특수대학원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서도 신설학과에 대해 소개하며 책정(안)을 설명하다. 마지막으로 2026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인상 필요성과 인상(안)을 자세히 설명하다.

- 위원장이 세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 후 집중적으로 의결 진행하고자 함을 안내하며 질문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6학년도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7% 인상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안을 발제하여 설명하다. 해방이화 제57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온라인 구글폼을 통한 이틀 간의 정보 수집을 진행하였고 총 738명이 참여함을 부연하다. 이어 등록금 인상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89%가 매우 반대, 3.5%가 반대하여 92.5% 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이미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과 장학금 선발과정에 대한 의문, 외국인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장학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다는 등의 의견들을 언급하다. 또한 수업료 인상에 비해 낮아지는 QS 순위에 대한 의견도 다수 있었음을 설명하고 등록금 인상 대해 학교 측에서 미리 제시한 것이 아닌 학생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임을 주장하다. 추가로 24학년도 8% 인상과 25학년도 7% 인상에 대해 인상분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91.4%임과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규모의 불합리성, 단과대학별 등록금 차이 등에 대해 언급하다. 등록금 총당 비율과 함께 장학금 수혜 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료를 지원받는 형태이며, 장학금 미수혜 학생은 절반이 넘는 수치를 설명하다. 추가로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제도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교 혹은 학생들간의 소통이 45%, 수업 환경과 수업의 질 개선이 36%, 기숙사 및 거주 시설 지원이 26% 등임을 설명하다. 마지막으로 50%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개선점이 없다고 답변함을 언급하다. - 학생처장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임에도 유학생이 아니라는 답변이 28.5%인 부분과 설문 결과 중 합이 100%가 넘는 문항에 대해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외국인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인상안에 대해 설문한 내용이며 중복 응답 가능한 문항임을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학교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이라 도움이 크게 될 것 같고 설문 결과 중 그래프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자료를 별도로 수신할 수 있는지 문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많은 항목으로 인해 일부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회의 이후 제공함에 대해 답변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국고 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학교의 대응 투자 규모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산학협력관 내 사업단 공간 확대에 대한 부분과 금액적으로 약 20% 정도임을 답변하다. - 위원장이 대응 투자뿐만 아니라 제안서상 반영된 교수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투입도 큰 비중임을 언급하다. - 기획처장이 대응 투자에 함께 교원 충원, 직접 연구에 대한 투자와 대학원생들에 대한 연구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음을 부연하다. 또한 대형사업 수주는 대응비를 포함한 발전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것이 심사
--	--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	-----	-----	-----

	대상임을 설명하다. 연구중심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은 연구인력, 대학원생을 포함한 석사과정, 박사과정 양성과 규모에 대한 측면이기 때문에, 대학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길 예정이며 상당 부분은 연구비이고 상당 부분은 학교의 지원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임을 설명하다. 궁극적으로는 사업 수주로 연구력 향상과 대학원 교육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며, 학생들과 연구 환경을 마련하고 대학원을 활성화하고자 함을 언급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질의응답 진행방식에 대해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다. - 위원장이 안건별 시간제한을 통한 방식 변경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충분한 질의응답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제한이 적합하지 않음을 주장하다. 작년도 설문 결과와 올해 이틀간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반발이 큰 사안임을 언급하다. 인상안과 관련하여 유학생들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미 운영되어온 항목들인데 추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인을 요청하고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인상 상한선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법적 상한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다. 또한 신설된 항목은 적지만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우리 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치는 24학년 2학기부터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기에 25학년도에 글로벌학부를 신설하여 진행한 첫 해였음을 강조하다. 매년 12월 경 국제처에서 진행하는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EAASIS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만족도가 높았으나,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만족도가 낮았음을 부연하다. 개인적 사정에 따라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생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비용 증가에 있어 한계적 부분이 있지만 횡수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계속 고민한다고 발언하다. 덧붙여 2025학년도 커뮤니케이션학부의 영상제작센터 환경개선사례를 통해 만족도를 제고한 부분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교무처 차원에서 호크마교양대학 특임교수를 기존 1인에서 3인으로 확대한 교원 투자 사례를 설명하고, 호크마교양대학 내 학부장 제도를 마련하여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강화한 사례를 부연하다. 또한 커뮤니케이션학부와 경영학부에 각각 특임교수 1인을 추가 배치에 대한 내용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임교원 확보도 적극 고려 중임을 설명하다. 인적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연결되는 과정을 부연하며, 유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강좌도 3개 강좌 개발 이후 1개 더 확대할 예정임을 언급하다. - 기획처장이 18대 총장님 부임 후 집행부가 생각하는 주요 목표 중
--	---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	-----	-----	-----

	하나가 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 지원 강화이고, 매달 어젠다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유학생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함을 부연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글로벌학부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대학 사례를 들어 1학년 동안 호크마교양대학 소속 학생이고 경영대 소속이 아니므로 경영학과 학생회 행사 등에 참여하여 한국인 재학생과 교류하고 싶어 함에도 학생회비로 운영하는 행사에 참여하기가 어렵거나 제한적인 실정을 설명하다. 또한 행사 운영 시 유학생과 교류할 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증대되어야 함을 주장하다. 7% 인상 시에도 유사 프로그램 개설 고려 여부와 위 사항도 책정에 반영되었는지를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외국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학부 내국인 학생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음을 들어 유학생들이 많은 과들에서 학부 학생이 함께 혜택을 받아야 발전이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작년 신설된 글로벌학부 뿐만 아니라 여러 단위 학생들 간의 관계 설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임을 언급하며, 학교적 차원의 지원은 꾸준히 확대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조교로 참여했던 학부 전공 수업에서 중국인 유학생과의 관계를 예시로 들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 소통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다. 등록금 인상 후 한국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와 멘티 제도 운영을 확대하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주장하다. - 예산팀장이 현재 운영 중인 이화메이트 등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언급하고 다만, 수혜 대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실제 잘 운영되는 사례도 보았으나, 등록금 인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참여율, 만족도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며,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측면에 투자할 목적으로 인상안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다. 등록금 인상 후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 지원이 확충되는지도 불분명하며 과마다 지원이 다른 부분이나 유학생들이 지원에 대해서도 모르는 실정인데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참여율이 낮은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등록금 인상분의 효과를 예측하는 등 명확한 근거를 통해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표하다. 7%라는 근거에 대한 논리를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구조적 문제나 제도 운영에 있어 불충분한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완벽하진
--	---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	-----	-----	-----

않지만 각각의 제도 시행 후 사후점검을 하고 있고 개선되어지고 있다고 판단 된다고 부연하다.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여겨 부족한 부분을 변경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인상의 근거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예산을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하여 등록금 이상으로 환원하고 있음을 답하며 두 가지 관점에서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 제안하다.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내외국인의 등록금 이원화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 대학 이 주요 대학에 비해 내외국인 등록금 차이가 크지 않은 학교임을 부연하다. 두 번째로, 체감 등록금을 산정 근거로 들어 5년간은 명목 인상률이 높다 하더라도 원화 하락이 이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부담률이 감소한 점을 언급 하다. 원화 가치가 급등하면 상승 여력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하며 올해는 외국 인 기대 수요를 충족하기 적정한 시기로 판단하였음을 설명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학생 유치를 늘리는 것과 등록금과 무관하게 진학하고 싶은 대학으로 변모하는 것 중 더 적합한 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 음을 답하다.

- 위원장이 국제처를 비롯하여 교내 외국인 학생의 국적 다양화를 위 한 유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연하다. 체감되지는 않겠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우리 대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유학생 장학금의 신입생 장학금과 재학생 장학금 모두 성적 조건과 더불어 TOPIK 기준이 엄격함을 이야기하며, 학습 지 원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등록금 지원 외의 현금성 지원, 생활비나 활동비 지 원 등이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에게 제한되어 있는 EGPP 외에는 존재하지 않 는 부분을 언급하다. 물가인상률은 학교 차원의 부담뿐 아니라 학생 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외국인들에게 근로기회 늘리는 게 여전히 부족하여 등록금 인 상이나 생활비 상승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음을 주장하다. 이에 장학 금 확대에 관한 의견을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올해 장학금을 대폭 상향해서 내년에 적용될 예정임을 답하다. 자료에는 신입생 장학금과 성적 장학금으로 외국인 대상 장학금에 한해 제시되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은 재학생으로 내외국인 장학금도 모두 적용 가 능함을 부연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지사항이 영어나 중국어로 번역이 되지 않아 외국인 유학생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정보값을 얻기 힘든 상황을 먼 저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다.

- 기획처장이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의 영문과 중문은 과거보다 훨씬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늘어나고 있으며, 정보량의 차이가 있어 내외국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생 수가 낮은 것은 사실로 추가 홍보가 필요해 보임을 언급하다. 유학생 금지 장학금은 거의 없으며, 등록금 인상분과 관련하여 유학생의 장학금 수혜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답하다. - 위원장이 첫 번째 안건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안건을 논하기 어려우며, 답변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답변해주기를 요청하다. - 위원장이 첫 번째 안건에 대해 계속 질의를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QS 순위가 유학생의 관점에서 가장 예의주시하는 사안인데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질의하다. 등록금 인상으로 QS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추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분과 대학원 등록금 인상분 모두 QS 순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투자의 일환으로 사용될 것임을 답하다. 이어 QS 순위를 한 번의 투자로 일시에 상승시키기는 어려운 구조임을 설명하고 연구중심대학을 위한 다양한 투자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QS 순위는 우리 대학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전체 예산 규모를 상정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함께 책정하게 되는데, 학교 예산 변화나 추가 필요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수입 증대를 통해 투자하겠다는 주장은 납득되지 않음을 주장하다. - 예산팀장이 예년보다 수입이 증가한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장학금을 차감한 순등록금 수입으로 보수 충당이 불가한 상황임을 설명하다. 등록금 수입이 전체 예산의 반인 상황이므로 인상분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충당하거나 추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우리 대학의 전체 예산은 마이너스 예산이 아닌 상황이지 않은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기금을 계속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답변하다. 학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원금보존특정목적기금의 경우, 1,000억 원대 규모에서 300억 원대로 감소하였음을 들어 본부 차원에서 학교 전체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	---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	-----	-----	-----

	로 사용하고 있는 기금이 부족한 실정임을 부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대안 재정 확보 방안을 질의하다. 학생의 등록금으로 학교 운영의 절반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인상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학생들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음을 공감하지만 학교 운영 예산의 나머지 예산 충당 방안을 역으로 질의하다. 정부에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2027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과 등록금 동결을 연결하여 통제하던 부분을 해제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을 최근 3개년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춰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음을 언급하다. 17년 간 동결 상황이었고, 2025학년도 3.1% 인상도 2008년 등록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질 등록금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고 답변하다. 또한 학생 설문조사에서도 언급된 QS 순위 상승을 위한 투자 등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학교 투자 증대를 부연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의 입장에서 등록금 납부에는 이유가 필요하며, 재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임을 주장하다.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한데 왜 7%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부재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발언하다.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금액이 얼마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외국인 유학생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만 운영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며,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투자가 당연히 이루어짐을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실질적으로 7%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부담이나 향후 인상 수준을 고려하여 제안 드린 것이며, 인상분 이상으로 환원하겠다는 내용임을 답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심위는 등록금 사용처와 인상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늘 부족한 재원을 이야기하지만, 부족한 상황 속에서 재원 활용계획이나 고려하고 있는 기대효과를 제시하기를 기대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과 투자를 확충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답변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언하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관련하여서도 다수의 장학금과 지원체계가 존재함은 알지만 만족도와 실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원 활용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 수치만으로
--	---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	-----	-----	-----

	는 책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안을 심의하면서 국가적 재정을 이야기하자거나 타 재원 확보가 아닌 학생 투자만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다. 7% 인상보다는 낮은 인상 %로 조율할 수 없는지 제안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인상분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투자비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등록금 수입 확보가 이루어져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을 부연하다. 학생들의 부담과 타 대학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 인상으로 안건 상정하였음을 언급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 인상 외에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부연하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기부금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작년의 1.5배 이상으로 굉장한 노력이 소요되었음을 언급하다. 국가사업 수주와 함께 외부 재원 마련 노력이 여러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재원이 부족한 점을 이해하더라도 외국인 유학생이 부담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발언하다. 재정 부족의 원인이 외국인 유학생이 아님에도 더 높은 인상률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법적 상한제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인식됨을 부연하다. - 예산팀장이 세계적으로 내외국인 등록금이 3~4배 차이 나는 등 내외국인 등록금 이원화 체계는 국가 교육 재정 투자와 조세 부담이 연결되어 마련된 구조임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내외국인의 제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으로 인식됨을 언급하다. 추가로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간호대학원 신설학과 등록금을 원안대로 책정한 후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따른 별도 증가분이 발생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2026학년도 등록금으로 신설학과 등록금을 책정했음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대학원 입학금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부와 대학원의 입학금 차이에 대해 답변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신설학과에 대한 신규 교원 채용 계획을 질의하다.
--	---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 위원장이 신설학과에 대한 신규 교원 채용 계획을 답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특수대학원 수업 수강 시 겸임교수나 강사 등 비전임교원 비중이 크며 전공주임교수가 비전임교원인 경우를 들어, 수업의 질 관리 차원에서 우려를 표하다. - 위원장이 특수대학원 중 교육대학원의 사례를 들어 전담 전임교원을 보유한 경우를 설명하며, 신설되는 간호대학원은 유사한 경우일 것으로 전망함을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특수대학원은 전임교원이 없는 경우도 다수임을 부연하며, 특수대학원의 당초 취지가 직업인이나 특수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전문대학원처럼 대학원 전담 교원을 두는 것과 같은 법적 구별이 과거 있었음을 설명하다. 간호대학원은 전문대학원과 유사함을 들어 교원 충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부연하다. - 위원장이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고 세 번째 안건의 질의응답을 요청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대학원 대표로서 연구 실적이 부족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공감하나 2개년도 등록금 인상을 하였고 환율 상승으로 인해 국내 내국인의 가게 소득과 재정이 어려워진 부분을 주장하다. BK나 대형 국고 과제 수주를 통해 공학계열 학생들은 연구비를 지원 받았지만,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 등의 학생들은 등록금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언급하다. 공학 중심의 균등하지 않은 배분 문제에 대해 우려하다. - 학생처장이 장학금 책정은 계열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선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적 장학금 외에는 자동선발이 아닌 신청을 통해 선발됨을 안내하다. 학생들의 적극적 신청이 필요함을 언급하다. - 위원장이 국가사업의 8~90%가 이공계 사업으로 해당 인건비로 배정되어 비중이 적은 부분에 대해 부연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같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며,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중요성도 고려하여야 함을 주장하다. 추가로 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행정 운용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하다. 등록금 인상과 함께 조교 장학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고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신설되는 장학금과 관련하여 등록금 인상과 동일하게 2026학년도 1
--	--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학기부터 적용이 불가한지 문의하다. - 학생처장이 올해도 학부와 대학원 모두 장학금이 증가하였고 내년에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답변하다. 장학금 시행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 내년 2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음을 부연하다. - 예산팀장이 장학금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신설 장학금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이공계 우선이 아니라 균등하게 모두 선발 가능한 장학금임을 답하다. - 학생처장이 신입생에 한해 적용되는 장학금이고 소급적용이 불가함을 답변하다. - 위원장이 제시한 조교 장학금 인상은 적극 고려하겠다고 추가 답변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대학원 계절학기 수강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며 1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조율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나, 계획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교육과정 변경 등은 여러 행정 절차가 수반됨을 답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대학원의 경우 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경우도 있는데 인상으로 인한 해당 학생들의 실질적 혜택이 무엇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의 당해학기 사용계획도 매우 중요하지만, 졸업 이후에도 QS나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 상승, 대형 사업 수주를 통한 국내외적 지명도 상승 등은 졸업생에게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임을 답변하다. - 위원장이 학석박 연계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신설 프로그램으로 박사과정생 증가를 통해 QS 지표 상승을 도모하고 있음을 언급하다. 이공계 연구력 향상이 우리 대학의 우선 과제여서 이공계 대형사업을 수주했고 학석박 연계 프로그램, 장학제도 신설 등이 모두 인상분만큼 활용 예정임을 답하다. 대학원 계절학기 수강과 관련하여서는 개선이 가능한 규정은 검토해보고자 함을 부연하다.
--	--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	-----	-----	-----

	- 기획처장이 2026학년도 대학원혁신사업 수주를 언급하며, 학부 학생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대학원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임을 안내하다. 여러 대학원에서 필요한 공통과목 중 학기 중 수강이 어려운 과목은 개설하여 반영할 계획이며, 대응비 투자를 통해 대학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3개년 연속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인상과 관련하여 1학기 재학생에게는 지원이 부족한 측면을 언급하다. 제시안 외의 추가 재학생 혜택에 대해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2학기 수혜 확대는 추가 신설분에 대한 것이므로 이미 충분히 확대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답하다. - 위원장이 대학원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서 대학원 교육을 통해 교원과 대학원생의 연구 및 논문실적을 증대하고 이를 토대로 QS 평가 상승 도모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여러 안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당장 신설안을 도출하기보다는 대학원생 지원 혜택은 확대될 것임을 부연하다. 최근 전자철판 설치 확대 등 대형 강의실과 대학원생 강의실을 대상으로 한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대학원 등록금 인상이 실제 학부생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대학원생이 진행하는 실험이나 실습 등이 학부 교육과 직간접적 연결점이 있음을 들어 조교 부재로 증원이 불가했던 사례를 설명하다. 대학원 등록금 인상 혜택이 대학원생 개개인에게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로 보이며, 대학원 등록금 인상 시 학부생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기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수업조교, 연구조교, 학과조교 모두 전 학년도에 선정하여 배정하는 구조이며, 외국인 유학생 다수 강좌 조교 배정과 같이 매년 조교 투입이 증가되고 연구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조교도 증가되는 추세임을 언급하다. 학과조교도 금액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인원 증가로 인해 인건비는 증대된 점을 들어 인건비 상승의 부담이 있지만 하나의 투자로 학내 다양한 구성원이 혜택을 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답하다. - 학생처장이 수강인원이 80명 이상이면 1명의 조교가 자동 배치되는 구조임을 안내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교내 대규모 행사의 경우를 들어 무급조교가 운용되는 사례와 30명씩 동반되는 강좌에는 교수 1명이 운영하기 적합하지 않음을
--	--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언급하다. - 예산팀장이 특별한 행사의 경우에는 인력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상시 배정은 어려움을 답하다. 최근 채플조교는 장학금 인상을 결정하였고, 무용채플 등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인건비를 별도 지급함을 부연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인건비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대학원생의 상황을 들어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다. - 기획처장이 수업조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고 예산 사정상 모두에게 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설명하다. 행사성의 경우에는 자원봉사나 무급의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필수적 참여가 필요한 경우는 인건비 책정하는 원칙을 안내하였음을 부연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대학원은 도제식 교육이 크므로 소통 창구 이용이 어려움을 들어, 대학원 연구의 질이나 연구 성과에 있어서도 교원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학교 측의 많은 관심을 요구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에 비해 대학원 등록금 인상배경에서는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투자 확대나 지원 확대에 대해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이화 글로벌 엑셀런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2개의 연구 그룹을 구성할 때, 선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혜택을 수혜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닌지와 모든 계열의 인상임에도 실제 혜택이 이공계 중심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추가 질의하다. - 위원장이 장학금은 모든 계열의 혜택이 동일하고 연구 사업의 측면에서 이공계 혜택이 부각되는 부분임을 답하다. - 예산팀장이 'AI for ALL ESWHA'라고 하여 전공 불문 관련 지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대학원도 적용 대상임을 설명하다.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신설학과도 경쟁이 치열하여 원격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더 확보하고자 함임을 부연하다. 이공계의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지만 인문사회계열도 중점연구소 사업 등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부연하다. 우리 대학의 중앙일보 평가나 대외평가에서 인문사회 및 교육학의 순위가 높았는데 학교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한 성과로 볼 수 있음을 발언하다. 우리 대학의 공대 주요 대학에 비해 규모가 작고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다. 대학원 투자 측면에서는 그동안 학부 중심 운영체계에서 대학원을 위한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음을 설명하다.
--	---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확대 지원이 구체적으로 인원 총원 인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인지 세부계획에 대해 질의하다. 구독 비용 지원의 형태에 대해 추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전자저널은 교원 및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단가 인상과 환율인상으로 말미암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구독 중단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발언하고, 중앙도서관에서는 세계적인 연구 추세에 맞춰 연구 수월성에 기여하고 공동연구하기에 적합한 저널을 발굴하여 예산배정을 요청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학술DB와 전자저널은 중앙도서관에서 매년 필요 DB와 저널에 대해 학과에 문의하여 구독을 진행함을 부연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환율 인상에 따른 구독 비용 증가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추가로 구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유지만으로도 버거운 실정임을 언급하며, AI 관련된 저널이나 신설 저널 구독 비용을 요청하는 상황이라 재원의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다. 올해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비용 추가 지원을 통해 해소하고 있음을 답하다. - 기획처장이 저널 구독과 관련하여 구독 서비스 증가 비용과 구독료 단가 상승, 환율 인상에 따른 단가 상승 비용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 설명하다. 2026학년도 대학원 투자와 관련하여 행정 체계 개편을 통한 행정 서비스의 변화와 대학원혁신사업비 수주를 통해 프로그램 확대, 장학금 확대 투자가 발생할 것임을 안내하다. 올해 이공계 연구사업 외에도 대규모 인문사회계열 정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원 계획을 답변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융복합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이화 글로벌 엑셀런스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사업 공모를 통해 연구사업 선정이 이루어짐을 안내하며 절차를 설명하다. 기획처장이 계열별로 별도 구분 선발했음을 부연하다. - 위원장이 단과대학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이 불가하고, 계열별로 배분하여 진행하였음을 답변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융복합 사업을 하고자 하여도 계열에 따라 참여
--	---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가능 상황이 다른 부분과 융복합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장학금이 확대되는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장학금을 확대함을 답하다. - 위원장이 AI 관련 부정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카피킬러 추가 구매 비용 등 기존보다 확대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등록금 책정 관련 대학원 입학정원과 입학생 추이를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대학원 통합정원 관리임을 답하며,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정원이 통합적으로 운영됨을 안내하다. 충원율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있으며 신설대학원 및 전공 정원은 미충원 정원을 활용함을 설명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실제 충원 인원이 정원과 같지 않기에 대학원생 증가를 위한 노력과 인상으로 대학의 운영을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학과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다. - 기획처장이 대학원 충원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대학이 많음에도 우리 대학은 질 관리를 위해 학과의 재량권을 많이 드리는 편임을 발언하다. 첨단 분야나 우리 대학의 강점 학과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신규 과정을 만드는 형태임을 설명하다. 내년부터는 협동과정 신설을 통해 수요에 대응하는 전공에 정원을 배정하고자 함을 부연하다. - 위원장이 2027년 BK 5단계 진입을 위해 대학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 차원의 질 관리 유지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음을 안내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외국인 유학생 비율도 학부생 대비 비율이나 추이를 고려해야 하며, 과거 인상률 추이로만 봤을 때는 2년 전에 입학한 유학생은 과거의 동결 효과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다소 역올한 요소가 있을 수 있음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인상률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대규모 연구과제 수주와 관련하여 특정 연구팀이나 연구 분야 중심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별 대학원생 생활 개선에 대해 질의하다.
--	--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 위원장이 국가의 대규모 연구 사업이 이공계 중심이지만 사업을 통해 받는 간접비는 이공계 중심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연구지원을 위해 활용되는 부분임을 답하다. - 예산팀장이 교외연구비 수주 시 대학이 기여한 부분으로 간접비 수입이 산학협력단을 통해 제공되는데, 특정 계열뿐 아니라 모든 계열에 활용됨을 설명하다. 최근 연구 추세가 융복합 집단연구 중심으로 개인보다는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방향이며, 융복합 연구를 토대로 함께 연구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답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법적 상한 인상이 교육적인 정당성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3개년 연속 법적 상한 수준의 인상이 부적절함을 주장하다. 대학원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이 재원 부족 시 상시적인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우려하다. - 위원장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나, 인상이 필요하지만 인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모두에게 불편한 부분임을 부연하다. - 예산팀장이 안건 상정 시 법적 상한을 제시한 부분이나 법적 제한에 따라 상한과 동일하지 않고, 평균등록금 계산 방식에 따라 대학원 통합정원으로 인해 상한까지 인상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다. 등록금 인상을 계산 방법이 2026학년도부터 등록금 통계 방법 변경으로 인해 회의자료에는 반영하지 못했으나, 양해를 구하고 3% 수정 인상안을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 인상을 계산 방식과 배경에 대해 설명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아직 법정 상한선이 통보되지 않았음에도 등심위를 통해 대학원 등록금을 심의·의결하는 이유를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법정 상한 인상 의결을 통해 확정된 법정 상한에 맞춰 감산하는 방법도 있으나, 3%로 수정 제안을 한 이유를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법정 상한선 인상을 주장하다 의결 전 인상 비율을 수정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표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원 상정안과 수정안 비율이 달라지는 부분과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지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법정 상한 인상으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2026학년도
--	--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대학원 총정원제 평균등록금 산정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편제변동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계산이 필요하였으며, 실제 인상 시에는 법정 상한 내 인상이 필요함에 따라 법정 상한을 계산하여 책정하기보다는 3.0% 인상으로 수정 제안하였음을 답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정안은 발제 전에 고지를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지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다. 임의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면 논의를 통해 협상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초반부터 해당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사전 고지가 가능했음에도 수정안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회의 종료 시점에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주장하다. 정확한 책정 기준이나 인상에 대한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질의해도 명확히 답변하지 않음을 지적하다. 3% 인상안에 대해 의결이 불가함을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회의 중 안건 수정 제안이 가능하며, 수정된 안건이 의제로 채택되어 상정되면 의결할 수 있음을 안내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수정안 제안은 가능하나, 수정안 발의 후 논의가 진행된 게 아니라 마무리 단계에 제안한 부분에 대한 부적절성을 언급하다. - 예산팀장이 우리 대학의 대학원 등록금 법정 상한이 3.0%는 아니지만 비율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야기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로 수정 의견을 드린 부분임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원안을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기존 인상안으로 진행함을 제안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학생위원의 입장에서 등심위 운영 방식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등심위가 형식적인 자리로 전락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안을 반대하고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심위 운영 방식으로 동의와 재청을 통한 상정 및 발의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추후 등심위 운영 시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요청하다.
--	--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	-----	-----	-----

	- 위원장이 이후 등심위에서 이번 등심위에서 제기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요청하며, 원안을 준수하여 세 안건의 의결을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과거 등심위 사례를 보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별도 의결을 진행하였음을 언급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3% 수정안 제안에 따라 이에 반하는 1.5% 수정안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심위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다시 정확한 수치를 통해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하다. - 예산팀장이 회의 초반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며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며, 평균등록금 계산법에 따라 법률상 위반하지 않는 비율이 법정 상한임을 언급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수정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수정안 제시 후 시간을 연장하여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의결한 경험을 보건대 이번 수정안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지 못했음을 주장하다. - 스크랜튼대학 공동대표가 절차의 문제와 관련하여 변동성이 존재하는 등록금 법정 상한 인상의 안건 상정이 문제임을 발언하다. 졸속적으로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수정안의 정확한 수치로 의결을 하거나 법정 상한 부결 후 다음 회기에서 다시 새롭게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오늘 의결은 불가함을 주장하다. - 예산팀장이 시기상 다음 회기는 2026년 등심위이므로 위원이 변경됨을 언급하고, 일정 조율 및 오늘 논의한 사항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안건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등록금 법적 상한 인상에 대한 해석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번 임기 내 진행할 것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 인상 법적 상한 계산에 대한 문제와 타 대학 사례를 설명하다. 등심위 운영이나 발의의 부족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수정 제안을 채택할지로 의결하고 최종적인 단일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의 시 법정 상한 해석에 대해 설
--	---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명 후 의견을 묻고 합의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하다.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 인상으로 의결 시 해석과 적용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의결을 진행하는 것임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은 부적절하며, 다음 회의 안건으로 추가하기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추가 사과 후 대학원 등록금 책정이 오늘 회의에서 일정상 필수적임을 설명하다. 행정적 절차가 연관된 부분이라 거듭 양해를 구하며 의결 필요성을 언급하다. - 관리처장이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납부 일정과 관련하여 타 대학으로 유출되는 우수한 신입생의 빠른 등록을 위해 오늘 내 의결이 필요함을 부연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의결이 아닌 수정 안건을 공식적으로 발의하고 발의안에 대한 동의와 의결 진행을 요청하다. 이어 수정 안건에 대한 대학원 학생회장의 의견을 구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이 대학원을 대표해서 3.0% 인상을 우려하고 있으나, 학교의 방향성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이해함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을 3.0%가 아닌 2.0% 인상안으로 제안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도 5.0%로 비율 조정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대학의 사정상 3.0%도 부족한 상황이나 법적 상한 계산을 통해 제시된 안임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인상이 필요하고 등록금 책정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면 현장에서 비율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질의하다. 대학원 학생회장이 1.5%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니 인상률 합의를 통해 안건을 제시해야 함을 주장하다. - 예산팀장이 법정 최고 상한선과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맥락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최고 상한선이 3.19%이면 3.19%로 인식됨을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행정적 절차로 인한 필요성을 추가로 설명하며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다.
--	--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 총무처장이 현재 논의 중인 부분은 사실상 쟁점의 변화가 없음을 설명하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인상률은 법정 상한선인 3.1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될 것이며,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3.0% 또는 3.05% 등의 수치는 최종 조율을 위한 마지노선일 뿐, 학교의 기존 입장이나 정책 기조가 변경된 것은 아님을 부연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법적 상한선 변동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의결 직전에 수정안이 발의되고 대학원 학생회장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없이 기각하여 원안대로의 의결을 다시 논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다.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수정안 의결 중 원안으로의 의결도 변동 사항 중 하나임을 발언하다. - 위원장이 원안대로 의결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의결 자체에 대해 인상분 조정이 다소 일방적 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의결 어려움을 호소하며, 원안대로 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수정 의결안을 제안하여 진행하는 것에 의견을 구하다. - 예산팀장이 법정 상한 인상의 비율이 3% 수준임을 설명하고 안건 변화 없이 의결하는 것과 3%로 명시하여 수정 안건으로 하는 것 중 무엇이 적절한지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정 의결안 동의 절차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수정 의결안 상정 및 제반 절차에 대해 설명하다. 수정 안건 채택 여부를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위원장이 두 가지 수정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 후 진행을 제안하다. 먼저 첫 번째로 예산팀장 발의에 따라 3.0% 인상 수정 안건을 상정하고 두 번째로 대학원 학생회장 발의에 따라 1.5% 인상 수정 안건을 상정 후 각각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찬성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 위원 총 7인이 반대하여 1.5% 인상 수정 안건이 기각되다.
--	--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3.0% 인상 수정 안건이 채택되다. - 위원장이 세 번째 안건인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을 3.0% 인상으로 안건 수정하여 상정함을 안내하다. - 위원장이 안건별로 의결 진행을 제안하며, 먼저 2026학년도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2026학년도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위원장이 이어 2026학년도 특수대학원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2026학년도 특수대학원 신설학과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위원장이 수정안으로 상정된 2026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2026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

간서명	반지민	신동희	이준엽

	■ 폐회 - 위원장이 7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확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5년 12월 30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신동희		위 원	이승연	
	위 원	김수민		위 원	이주연	
	위 원	반지민		위 원	이준엽	
	위 원	석지우		위 원	이창온	
	위 원	송수진		위 원	장현수	
	위 원	윤정원		위 원	최정아	
	위 원	이다연				
작 성 자	예산팀 남 아 영					